

**Confessing Statement from the Executives of the Reforming Alliance and Evangelical Members within
the Uniting Church (EMU) (Received as a founding document of the Assembly of Confessing
Congregations at the inaugural meeting October 2006)**

개혁동맹 행정관들과 연합교단(EMU)내의 복음주의 신자들로부터의 고백문.

Note: 이 진술은 2006년 10월 13-14일 열렸던 창립총회에서 호주 연합 교단내의 고백하는 회중의 총회(ACC)의 설립 문서에 차용되었다.

Preamble 서문:

2006년 2월 27-28일 개혁동맹의 국제 행정부와 EMU의 모임은 호주연합교단(UCA) 생활의 신앙적 위기의 시점에서 일어났다. 지금은 교회(교단)의 위기의 시기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구약의 증거에 의해 부득이 교회와 모든 사람들 앞에 이 신앙 고백문을 만든다.

1. 우리는 신/구약의 예언자적 그리고 사도적 증언으로 증거되었으며, 우리가 반드시 듣고, 믿고, 우리의 삶과 죽음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2. 그는 '진리'시며, 그 진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명하셨고, 그래서 한 사람이 반드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결합하며, 그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막 10:6-9; 창 2:24)
3. 우리는 다양성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근거없는 주장들, 즉 성별에 대한 다른 이해들이 과거 2000년 이상 가톨릭 정교회와 복음주의 교회에 의해 이끌어져 왔고, 성서안에서 사도적 증거로서 나란히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들을 거부한다.
4. 그러므로 우리는 경우에 따라 '올바른 관계'안에서 살고있는 실행적 동성애자들에대한 성직 임명식을 허용한다는(소위 '84 결의안') 총회의 선포와의 해결되지 않은 대립 가운데 우리 자신을 찾는다. 우리는 동성애 관계에 있는 사람의 성직 임명이 교회의 신앙과 규칙에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5. 그 84개의 해결책에 관련해, 연합 교단은 신/구약과 보편 교회들의 전통이 '죄'로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교회들의 요구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의해 교회는 보편 교회의 전통과는 별개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적 증거들의 분명한 가르침과는 별개로, 그 차체의 것을 설립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혼란스럽고 신앙을 버린 교회가 되어갔다.
6. 그러므로 우리는 연합교단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자매 교회들, 즉, 연합을 향한 진보에 영향을 줄 로마 가톨릭, 정교회, 루터교회등으로부터 온 경고들을 주의하기를 간청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연합 교단의 구성원으로써 거룩한 성서와 가톨릭, 정교회,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의 신앙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우리의 충성심을 확인한다.
7. 우리는 "The Basis of Union 연합 원리/기초" 중 18번째 문단, 즉 '성령의 선물을 통한 길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생활 안에서의 잘못된 모든 점들에 대한 끊임없는 수정(제제)에 복종할 것이고, 그것은 다른 교회들과의 더 깊은 연합으로 인도될 것이다'라는 기

도에 합류한다.

8. 그러나 우리는 경고한다. 만약 연합교단이 그들의 현재 방침을 지속한다면, 그것은 분열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뛰어난 루터파 신학자인 Wolfhart Pannenberg (판넨베르그)는 선언한다. “성서적 기준으로부터의 이탈로써 더 이상 동성애적 행위를 이해하지 않기를, 또한 결혼과 더불어 동성애적 파트너십을 깨닫는 것을 억압받는 그 자체를 인정하는 교회를 위해, 그러한 교회는 더 이상 성서적 기초위에 근거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그것의 만장일치의 증거에 반대한다. 이 단계를 밟는 교회는 하나이자,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가 되는 것을 그쳐야 할 것이다.” Pannenberg in Christianity Today (Nov. 11, 1996; pp.34-38) –판넨베르그의 ‘오늘의 기독교’ 1996년 11월 11일, 34-38 쪽.
9. 연합교단 총회의 결정중에 존재하는 잘못된 가르침은 그 교회들의 신앙과 순종이 양육되고 규제되도록 한 살아있는 “말씀”안에서 기원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의 기원은 서구 사회안의 성적인 행동들에 대한 좀더 허락적인 태도의 세속적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 안에서 기원되어 왔다.
10. 다음들의 고백적 진술은 호주연합교단(UCA)의 the Basis of Union(연합원리)를 이해하는 것으로써 그 교회의 신앙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적 증거들위에 기초된 것이다.

Our Confession (우리의 고백)

우리는 여성과 남성 파트너들이 한 몸을 이루는 성(행위)의 선물과 함께 인간의 생명을 부여해주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신약 성서의 사도적 증언들은 분명한 논리를 따르고 있다. 이혼에 대한 근거들에서 바리새인들에 의해 도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법으로도, 또한 사랑에 근거한 올바른 관계에도 호소하지 않았다. 성은 인간 존재의 기초적 수준에 자리잡은 것이다. 예수님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인용한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의 인간을 만드셨다. (막 10:8)

창세기에서 이야기는(창세기 1:26-27) 인간이 하나님과 같음이 피조물 인간의 합리성, 창조성, 도덕적 양심, 자유 의지, 혹은 어떤 다른 동물들과 구분되는 구별적 특징들을 의미하는 용어로만 쓰여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들을 구분하는 성이 그들의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하나님과 같음(하나님의 형상)’속에 있다는 사실에 있다.

세상의 동물들이 ‘그것의 종(류)에 따라’ 창조된 것에 반해, 인류는 다양한 종류의 인종이나 문화, 혹은 다른 다양성으로 그렇게 많이 분류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직 ‘성’적인 방법으로 분류된다. 성은 ‘종’이 아니다. 그들의 기본적 인성을 형성하는 인간의 남성과 여성의 공존은 그들의 ‘하나님과 같음(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이다. 동성애적 관계의 인가(찬성)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된 인간의 또 다른 종을 후원(육인)하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바울은 '몸'에 관한 교리와 창조 이야기의 언어들을 사용하여 관계에 관한 케이스를 논하였다. 매춘을 비난하는 것에서, 그는 '타락'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리스도에 '고착'하기 위한(고전 6:12-20) 그리스 단어를 사용하면서 같은 구절, 창2:24 을 인용했다. 또한 '둘이 한 몸이 될 지라'라고 주장했다. 바울은 삼위일체의 속죄의 언어 안에서의 육체적 관계를 펼쳤다. 즉, 우리는 아버지에 의해 그 값으로 사졌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의미하며. 우리의 몸은 성령의 거룩한 성전이다.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한 육체의 결합을 강조하는 것처럼, 에베소서의 저자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5:25)의 이중적 연결성과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5:30) 교회를 따뜻하게 돌볼 것을 호소한다.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그는 창세기 구문을 인용한다. '이런 이유로, 남자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고, 그의 아내와 결합할 것이며, 둘이 한 육체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신비이며, 나는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적용하고 있다'(5:31-32).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의 몸의 지체들과 연결되어(묶여) 있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그 연합은 한 몸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의 육체적 연합과 상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줌으로써 계시된 남자와 여자를 위한 목적과 구원자 하나님의 의지는 그들이 반드시 거룩한 몸의 구성원으로써, 그와 함께 한 육체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부름 받은 이들을 명예롭게 생각한다. 독신주의자의 삶에 부름 받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제자도를 위한 것이다.

성서 안에서 동성애는 비난받는다: 히브리성서의 명백성과 일치성을 매치하면서 (창 19:1-29; 레 18:22, 20:13a) 그리고 사도적 증언도(롬 1:26-28, 고전 6:9-10) 성적 행동의 모든 다른 형태들을 거부한다. 바울은 '남성 매춘 간통자들인 소돔인들'(다른 사람들중에)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 들 중 몇몇이다.' 그러나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롭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기며, 신성해진다.'라고 단언했다.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고백한다; 즉,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황폐시키시고, 우리를 그의 새로운 창조의 부분으로 만들어 주신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본성과 인간 삶을 위한 목적, 그리고 죄를 통한 그것의 논박은 신앙의 이해를 위해, 복음의 선포를 위해, 그리고 '사랑과 정의의 새로운 규칙(질서)'을 위해 중요한 것이다. (*The Basis of Union* 중 3번째 단락)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자비와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우리 모두는 쉽게 넘어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고, 인간을 순종하도록 부르셨으며, 신앙을 통해 선물을 받도록, 회개하도록 부르신다.

우리는 세상에 적합한 것이 아닌(Rom 3:23)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화해를 위한 감사를 가지고(고후 5:16-21) 교회의 결속을 공약함을 믿는다.

- 동성애적 실천(실행)에 의해 유혹되는 사람에게 친근감을 갖고, 자비로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그리고 그들이 유혹이나 적개심, 질병 혹은 사별등을 경험할 때(갈 6:1-6), 그들에게 상담을 해 주고, 목회적 돌봄(요 8:1-11)을 해 주기.
- 성서의 명백한 증거에 반대되는 행동을 포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 실행적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기. (갈 5:16-25)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예배에 환영해 주며, 목회적 돌봄으로 그들을 보호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적 존재'가 되는 방법 안에서 있으며, 그 죄들을 지적함을 확신한다. 이것은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이다(요 3:16-17).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동성-' 혹은 '이중적 성 성향-'을 '정의'와 '동정'이라는 이름으로 지지하는 시도들을 거부한다. 즉, 우리는 신/구약 안에서 이러한 관점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기꺼이 정정한다.: 1560년의 Scots Confession (스코트 고백)과 함께 우리는 만약 이 고백 안에 누구든지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되는 어떤 것을 기록해야 한다면,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글 안에서 그것을 알도록 만든 그들의 기독교 자비로일 것이라는 것을 변론한다. 우리는 약속한다. 만약 우리가 기록한 성서에 의해 적합하지 않은 것을 증명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인식할 것이고, 교정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해치고 나가야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는 진리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희망을 확신하는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멘.